

2회 청소년인권캠프 - 별세상 프로그램

첫째날 (6일)		둘째날 (7일)		셋째날 (8일)	
		08:00 ~09:00	일어나서 아침식사	08:00 ~09:00	일어나서 아침식사
09:00 ~13:00	무주로 이동	09:00 ~12:00	신나는 물놀이	09:00 ~10:00	잠깨기 산책 & 짐정리
				10:00 ~11:00	“별을 새기다” 캠프 소감 나누기
		12:00 ~13:00	점심식사	11:00~	집으로~
13:00 ~14:30	숙소 배정 및 점심식사	13:00 ~15:00	낮잠시간		
14:30 ~15:30	“별을 만나다” 몸풀기 맘열기	15:00 ~18:00	“별을 쏘다” 인권을 찾기 위해 행동하는 것의 의미		
15:30 ~17:00	티셔츠 만들기				
17:00 ~18:00	“별을 낚다1” 인권침해 종합진단				
18:00 ~19:00	저녁식사	18:00 ~19:00	저녁식사		
19:00 ~22:00	“별을 낚다2”	19:00 ~22:00	“별을 만든다” 인권을 찾기 위한 행동을 연습하자~		
22:00 ~22:30	캠프 규칙 정하기	22:00~	“별이 되다” 캠프파이어		
22:30~	잠자리 뜨는 영화				

<별을 낚다 1> 청소년인권침해 종합진단

◎ **목표** : 일종의 시작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인권의 눈으로 다시 보고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인권침해로 이름붙일 수 있게 한다. 인권감수성을 높여 평소에 느꼈던 불만이나 답답함, 불쾌함, 불편함들을 인권-인권침해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개요** : ▲공간 ▲몸 ▲물건 ▲인물 ▲말(+ ▲시간표)의 5가지 주제/계기를 매개로 하여 모둠별로 자신의 일상 속에 있는 인권/인권침해를 찾아보고 표현하게 한다. 뭐가 인권이고 뭐가 인권이 아닌지 막막해하거나 어려워할 수도 있으므로 쉽게 풀어쓴 아동권리협약, 2008청소년인권선언 등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해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들을 미리 제공하고 읽어보도록 가이드한다.

▲ **공간** : 인권지도 그리기. 학교, 집, 거리, 학원, 공원, 편의점, PC방, 일터, 수련관, 지역아동센터, 교회 기타 등등... 모듬의 청소년들이 평소에 생활하는 공간들을 단순화시켜서 종이에 표현한다.(학교처럼 큰 공간은 약간 더 세분화. 운동장, 복도, 교무실, 교실, 강당, 급식실 등으로...) 각 공간별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겪었던 사건들을 포스트잇으로 써서 모듬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붙인다. 자칫 개인적으로 포스트잇을 써서 마구 붙이며 진행되기 쉬운 프로그램이므로, 진행자는 모듬 안에서 포스트잇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어떤 사건인지 같이 이야기한다. 발표할

사람을 정해서 발표한다. 내용이 많다면 중요해보이고 공감을 많이 받은 사례들만 골라서 발표.

▲ 몸 : 인권의 실루엣. 한 사람이 누워서 그 사람의 몸의 윤곽선(실루엣)을 따라 종이 위에 사람 몸 모양을 그린다. 그 몸 모양에 대해서 각 신체 부위별로 관련된 인권침해, 겪었던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붙인다. 체벌을 당했던 기억, 두발복장규제, 성폭력 등일 수도 있고, 가슴에 연애에 대한 통제, 머리에 입시공부에 대한 압박, 눈에는 18급 영화에 대한 문제제기 등등을 쓸 수도 있다.(약간 추상적인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뜻. 여하간 몸에서 연상되는 경험이나 인권침해들을 쓰는 게 목적이므로.) 진행자는 모둠 안에서 포스트잇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어떤 사건인지 같이 이야기한다. 발표할 사람을 정해서 발표한다.

▲ 물건 :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인권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 물건을 꺼내달라고 한다. 그 물건과 관련해서 어떤 인권침해를 받았는지 이야기한다. 그 물건이 인권침해를 가한 도구인지, 또는 내게 정말 소중한 무엇이라든지, 금지된 물건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꺼낸 물건들 외에 더 없는지 이야기하며 지금 당장 없는 것들은 그림으로 표현한다. (예 : 매, 휴대전화, 신발, 귀고리, 다이어리, 일기장, 담배, 만화책, 컴퓨터, TV, 변기, 청소도구 등등등) 이야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색지에 물건을 붙이고(붙이기 곤란한 물건은 그냥 얹어두고 발표할 때 따로 들고 나와도 됨.) 포스트잇에 다양한 인권침해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적어서 붙인다. 각 모둠별로 10개를 넘지 않도록 요구함.(실질적으로 5~6개?) 발표할 것을 4개나 5개 골라서 발표한다.

▲ 인물 : 내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고발한다! 모둠 구성원들이 다양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교사”, “엄마”, “선배”, “언니”, “동생”, “~~” 등 일반화된 범주의 인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먼저 어떤 사람으로 할 건지 모둠 구성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3~5명 뽑는다. 여러 잡지 등을 보고 그 잡지에 나온 사진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과 비슷한 이미지의 사진(코믹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 표현해도 됨.)을 오려서 붙이고 그 사람이 내 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그 경험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사진 주위에 붙여나간다. 발표할 사람을 정해서 발표한다.

▲ 말 : 내 인권을 침해했던 말들을 뽑는다. 들었을 때 기분 나빴던 말들, 인격적 모욕을 받았던 말들, 인권침해와 폭력/차별을 정당화하는 지긋지긋한 논리-말들을 모둠 사람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한다. (비슷비슷한 말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나간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걸로 공감 받았던 말들을 골라서 모둠 사람들끼리 토론해서 순위를 매긴다. 1위부터 5위까지 적고 말 위에 색지를 붙여 말들을 가린다. 말들 주위에 포스트잇으로 왜 기분이 나빴는지, 이게 왜 인권침해인 거 같은지를 써서 붙여두고, 발표할 때 포스트잇의 내용만 읽어주면서 5위부터 1위까지 어떤 말들인지 맞춰보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 시간표 : 하루 일과를 시간표로 표현. 모둠 구성원들의 희망에 따라 표 형태로 표현해도 되고 동그라미 형태(24시. 방학 시간표 짜듯이;)로 표현해도 된다. 모둠 구성원들의 구성이 다양하면 시간표를 1개가 아니라 2개나 3개 만들어도 된다. 시간에 따라 자기 일과를 표시하고, 그 시간에 당하게 되고 겪게 되는 인권침해를 포스트잇으로 붙인다.(예 : 학생의 경우, 등교시간에 교문지도. 수업시간. 점심시간. 집에서. 학원에서. 야자시간 등등) 발표할 사람을 정해서 발표한다. 내용이 많다면 중요해보이고 공감을 많이 받은 것들 골라서 발표.

◎ 별을 낚다 때 진행

설명+PPT(10분) : 2009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은... 여러 가지 사진과 멘트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현실들을 보여줌.

모둠별 진행(40분) : 모둠별로 준비 뽑기하여 5개의 주제 중에 하나를 뽑아감. 모둠별로 각 내용에 따라 진행.

(쉬는 시간, 저녁식사)

모둠별 발표(30분) : 그냥 발표.

정리(5분) :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서 멘트로 정리하고, 이후에 이갈리아의 자식들을 할 테니 이와 연결짓는 정리.

◎ 총진행 : 공현

◎ 준비물 : 전지, 색지, 크레파스, 매직, 테이프, 잡지, 포스트잇, 빔프로젝트

<별을 낚다 2 - 유스 이갈리아의 자식들>

◎ **목표** : 당연시하게 되는 청소년인권 침해를 뒤집어서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불합리한 풍경인지를 깨닫게 한다. 또한 청소년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 등이 사실은 사회적·정치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준다. (통쾌함과 재미는 보너스)

◎ **개요** : 이상한 동굴에 떨어져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날아온 여러분. 여기는 유스 이갈리아. 어른과 아동의 관계와 현실과는 정반대인 세상. 순수하고 사익에 휘둘리지 않는 아동들만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과학이 주류인 사회. 유스 이갈리아의 모습들을 재연하는 상황극을 통해 이 상황을 이해해보자.

(PPT를 이용하여 유스 이갈리아 사회를 소개함)

- 준비하는 진행자들이 유스 이갈리아의 '명절풍경'을 예시로 보여준다. 세뱃돈은 아동이 준다. 세배는 늙은이들이 청소년들에게 한다. 기타 등등의 모습들.

5개의 상황들을 제시하고 모듈별로 구체적인 대사와 상황극을 준비하게 한다.

① 정치 영역 : “촛불 아저씨” 위험한 쇠고기 수입 반대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벌어진 촛불집회. 거기에 40~50대 남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놓고 “촛불 아저씨”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촛불 아저씨들과 아동·청소년들 사이에 알듯 모를 듯한 갈등들이...

② 정화교육 학교 : 학교에서는 더럽혀지고 사육에 찌든 어른들에게 공익과 도덕에 대한 관념을 가르치기 위한 정화교육이 벌어지고 있다. 정화교육의 교사는 일부 모범적인 청소년들이고 학생들은 30대 이상의 어른들. 학교에서 정화교육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어른들을 불러서 혼내는 교사. 집에 전화를 하는데...

③ 과성년자보호법 : 과성년자들은 욕망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잡념, 사리사욕이 많다. 예컨대 순수한 청소년들은 성행위 등을 보고 아름다운 사랑을 배울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성행위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지만, 과성년자들은 함부로 따라할 수 있으므로 통제받아야 한다. 이 과성년자보호법이 최근에 강화되어 적용되면서 여러 노래가 무더기로 과성년유해물로 판정받고 19세 이상 관람 불가 딱지를 받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TV토론회가 열렸는데...

④ 무서운 40대 보도 : 불량어른. 이들은 금지된 술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하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40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화되고 있다. 걱정스럽다는 뉴스 보도. 그리고 이 보도를 같이 본 어느 한 집의 청소년과 어른들의 반응은?

⑤ 통금 시간 : 어른들은 밤늦게 쏘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과성년자보호법에 따라 찜질방, PC방에도 밤 10시 이후에는 출입금지된다. 어느 집,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온 어른. 청소년들이 혼내기 시작하는데... 반항하는 어른. 집안 갈등 어떻게?

⑥ 반말 : 동사무소에 한 어른이 서류를 받으러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던 청소년 한 명이 반말을 했다. 이에 불쾌해진 어른이,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거기다 공무원이 시민한테 반말을 쓸 수 있냐고 존대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청소년은 “하, 내가 너만한 부모가 있는데...” 라면서 싸우기 시작한다.

⑦ 용돈 : 한 달에 2만원밖에 용돈을 못 받는 어른. 불만이 많다.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자기보다 용돈이 높다. 이제 집에 가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하고, 청소년들은 완강하게 거부한다.

- 모듈별로 상황극 발표가 끝난 뒤

“다행히 또 다른 구멍을 발견해서 우리는 금방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어떤 점이 제일 웃겼어요?” 질문하고 답을 얻는다. 현실에서도 웃기는 논리로 억압 중. 그 웃기는 논리들 꼬집어낸다.

프로그램의 의미를 설명하는 정리.

추가 강연

“더 큰 이유, 더 큰 음모, 더 짜증나는 것들이 숨어있는 건 아닐까요?”

유스 이갈리아에서 어른들은 그렇게 억압받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왜 억압받고 있는 걸까?

근대에 아동에 대한 관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말말말 뽑아서 소개한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나?

단순한 어른들의 편견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다.

빠빠 룽스타킹 영상, 벤포스타 영상 보고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마무리.

◎ 별을 낚다 진행

설명+ ppt (10분)

모둠 별 상황극 준비(40분)

(쉬는시간 10분)

발표 (25분)

현실로 돌아와서 정리 (5분)

강연+ 영상(20분)

◎ 진행 : 엠견, 난다

◎ 준비물 : 상황극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표용 색지와 양면 테이프 또는 클립. 각 상황을 안내하는 쪽지. 영상, PPT, 빔프로젝트

<별을 쏘다 - 저항하는 삶의 의미> 진행안

- 기획 & 진행자 : 개굴

1. 몸과 마음 열기(1시간)

1) 몸 풀기 놀이

: 빈방 있어요?

: 너 뭐하니?

2) 자유롭게 표현해보자

- 내 몸을 해방시킨다는 것 : 우리 몸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 공간 채우며 걷다가 세 명씩, 또는 네 명씩 만나기

- 글자 만들기, 비오는 날, 협력기계 만들기, 서커스

3) 자유롭게 상상해 보자

- 상상을 통한 변형 놀이 : 막대 변형, 의자 변형

2. 분노-정당성-저항(1시간 반)

1)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 연극 속으로

* 1950년대 미국 인종분리법이 기세를 떨치고 있던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15살의 클로테트 콜빈은 백인에게 좌석 양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연행된다.

- * 버스 기사, 경찰, 흑인 승객2명, 백인승객 3명, 클로테트 콜빈으로 역할을 나누어 맡고 당시 상황을 재연해 본다.
- * 콜빈은 왜 좌석 양보를 거부했는지, 이 광경을 지켜보던 흑인 승객과 백인 승객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콜빈의 행동은 현행법 위반이었지만 왜 거대한 저항의 물결로 이어졌을까?

=> 이 사건을 의뢰받은 인권단체 활동가라면 콜빈을 어떻게 변호했을까?

* 역할 맡기기 : 버스기사 (한날), 경찰(개굴), 콜빈(엠건 or 난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체포 사유: 인종분리법 위반, 풍기 문란, 경찰 모욕 죄>

* PPT (버스 안내문, 버스 실내)/ 검정색&흰색 천/

2) 분노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 논리 훈련

* 분노 다음에 논리다.

*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즉각적 행동을 낳지만, 그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동조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댄스 댄스>

- 호프집에서 열리는 댄스파티 홍보 전단지가 학교에 돌았다고 가정한다. 학교에서는 댄스파티에 가지 말라고 학생들을 단속한다.
- 참여자들을 가졌다는 학생 집단과 가서는 안 된다는 교사 집단으로 나눈다.
- 학생과 교사들이 간담회를 갖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모색해 본다.

<인천 예일고 학생부장과와의 만남>

- 예일고 이세기 씨 사건(두발 규정 불복종)을 바탕으로 논리를 개발해본다.
- 진행자가 예일고 학생부장 역할을 맡아 규정 준수와 처벌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
- 참여자들은 모두 이세기 씨의 도움 요청을 받은 청소년인권단체 회원이라고 가정하고, 학생부장을 설득해본다.

3)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저항

* 저항의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거나 발굴해본다.

* 혼자서 불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모을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 모듬을 다섯 개로 나눈 다음, 각 모듬에 인권침해 상황지를 나눠준다. 이 상황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저항의 방식을 고민해 본 다음, 상황극 형태로 발표한다. 여러 가지 저항 방식을 생각해냈다면 모두 표현해본다.

[5가지 상황지]

- 숲의 벌목으로 생존의 위협에 놓인 선주민들
- 동양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식당
- 교문지도에 걸려 방과 후 '푸른교실'에 남게 된 학생들
- 9시 청소년 통금지 시간을 정해둔 법률이 지배하는 나라
- 성희롱 발언을 일상적으로 내뱉는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 역사를 뒤훑든 불복종 행동의 사례를 진행자가 소개해 준다.(PPT 자료 활용)

3. 티끌만한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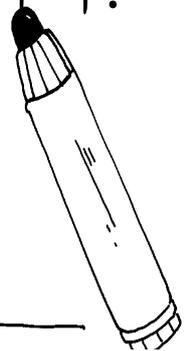
* 티끌만한 용기도 큰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꼴랑 그거야?'라고 말하지 말고, 삶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자기에게, 친구들에게 제안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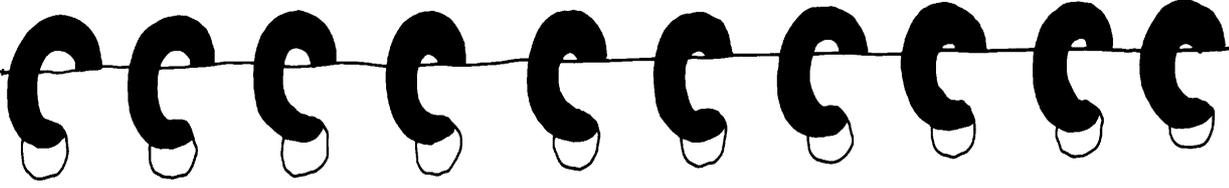
* 돌아가면서 종이에 적은 '내 삶의 불복종'을 발표하면서 끝~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고무나무를 기르고 호두나무에서 얻은 호두를 따서 먹고 삽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무나무, 사탕수수, 호두나무 등 숲은 우리에게 생존의 터전이자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고귀한 정령이기도 합니다. 숲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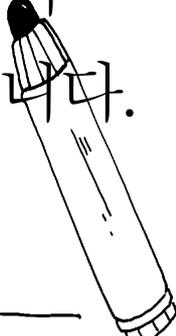
어느 날, 정부로부터 숲을 사들인 목축업자들이 보낸 벌목꾼들이 나타나 전기톱과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없애고 소를 키울 목초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더러 당장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고향을 떠나 잉갈리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첫 일주일엔 짐을 얻고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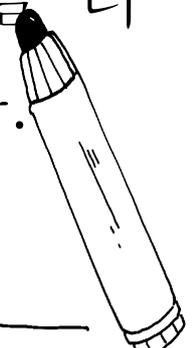
모든 일을 끝낸 우리 가족은 낯선 나라에서 첫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한 식당이 꽤나 근사해 보였습니다. 돈을 아껴야 할 형편이었지만, 이사를 하느라 고생한 우리들은 큰 맘을 먹고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들어가자마자 손님들이 모두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이 나타나 “우리 식당은 동양인을 받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둘러보니 그 식당 손님들은 모두 백인뿐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용의복장규정도 엄청 세고 교문지도
도 짝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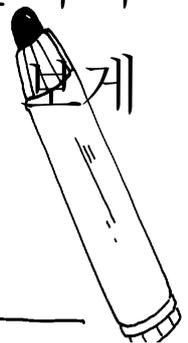
학교 규정을 어긴 학생들에게 벌점을 매기는 건
기본. 벌점이 20점 이상 쌓인 학생은 방과후에
남아서 '푸른교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푸른교실이 뭐냐고요?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걸
린 학생들에게 운동장 땡땡이 돌리고 오리걸음
시키는 것입니다. 오리걸음을 할 때는 "우리는
정신머리가 글러먹었다."를 외치거나 "잘못했
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를 외쳐야 합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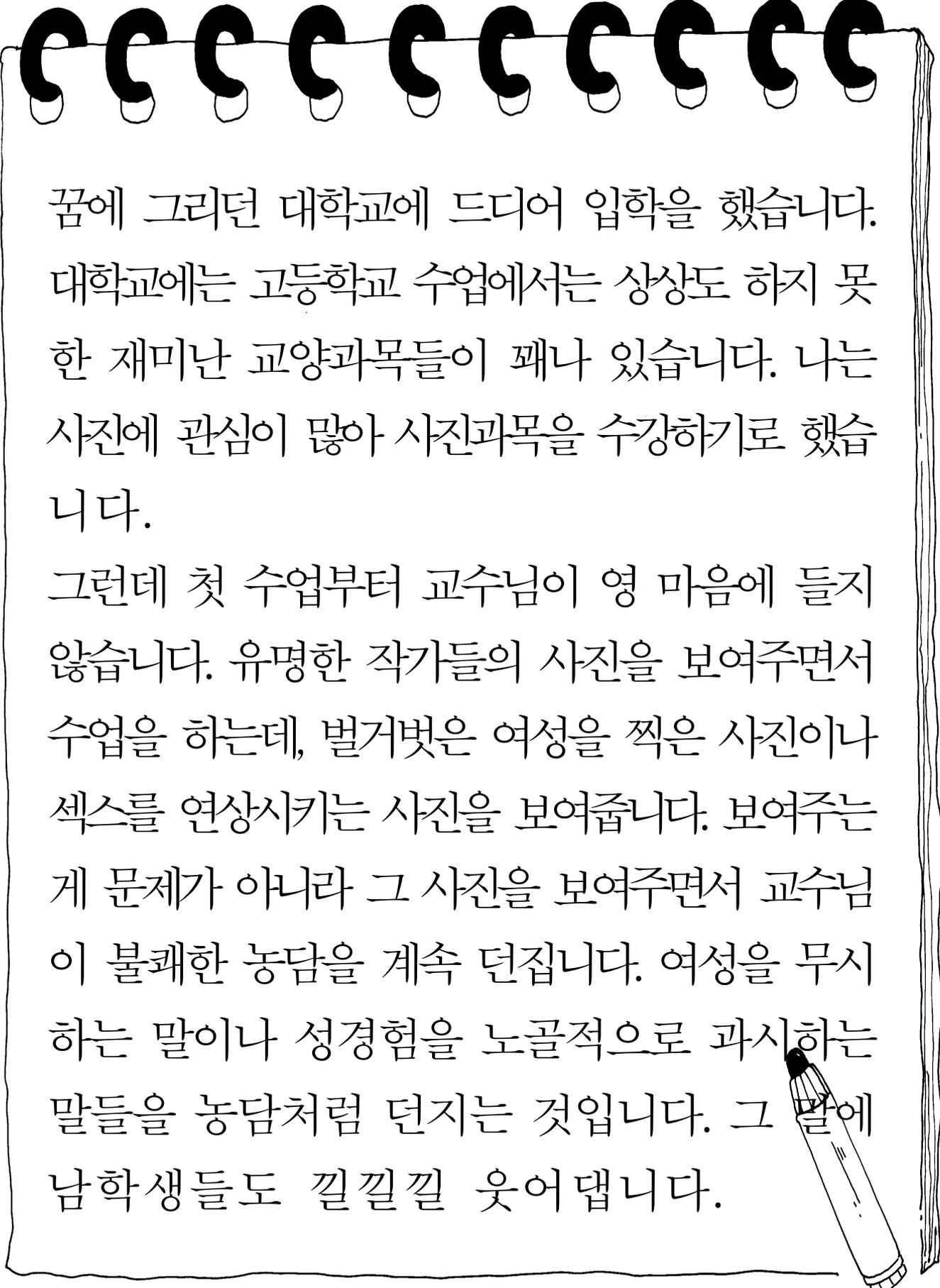
혹시라도 땡땡이를 치면 그 다음날 더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은 밤 9시 이후 거리에 나갈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돌아다니다가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합니다. 2번 이상 어기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갑자기 많이 아프거나 친척 중에 누가 죽거나 하는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는 경찰서를 찾아가 통행증을 받아야 합니다. 통행증이 있어도 어른과 꼭 동행할 때만 밤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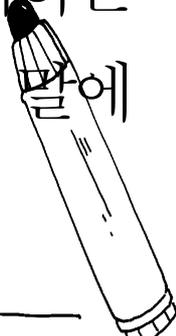
친구를 만나다가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도, 멋진 공연을 보고 있다가도 밤 9시가 가까워지면 우린 부랴부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될 테니까요.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드디어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는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재미난 교양과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나는 사진에 관심이 많아 사진과목을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부터 교수님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는데, 벌거벗은 여성을 찍은 사진이나 섹스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교수님이 불쾌한 농담을 계속 던집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말이나 성경험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말들을 농담처럼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남학생들도 킬킬킬 웃어댁니다.



십대 때까지 난 무척이나 소심하고 어른들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였어. 내가 무얼 원하는지를 들여다보기 보단 어른들에게 예쁨 받고 인정받는 데 연연해하는 아이였어. 간혹 고개가 가웃거리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금세 참을 만해지곤 했었지. '난 아직 어리고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걸, 너무 튀는 건 부담스러워, 그러다 선생님 눈 밖에 나면 어떻게 해, 세상이 이리 돌아가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 이제 와 생각해보면 참는다는 건 내 안의 목소리를, 내 안의 꿈틀거리는 역동을, 내 안의 양심을,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엮어내는 힘을 억누르는 일이었어. 공부는 잘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줄은 몰랐던 나, 친구가 부당하게 체벌을 받을 때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던 나, 떠든 친구의 이름을 적어내면서 내 이름은 적히지 않기를 바랐던 나, 엄마가 늦게 귀가했다고 아빠가 주먹질을 할 때 무서움에 떨며 오히려 (불씨를 만든) 엄마를 원망했던 나, 교원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선생님과 친구들을 외면했던 나, 그래서 예쁨은 받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사랑할 수 없었던 나. 그게 스무 살의 봄, 겨울 앞에 선 작고 움츠린 내 모습이었어.

대학을 다니며 인권이란 말을 만나고 나서야 난 비로소 나 자신을 찾게 된 것 같아. 나를 침묵케 하고 죽여 왔던 내 안의 '착한 아이'를 버리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나를 용서하게 되었고, '웅크린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자유와 평등마저도 부당한 관행과 법, 제도에 맞선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어진 끝에 가까스로 얻어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제도 따위에 따르기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행동을 시민불복종, 불복종 직접행동이라고 불러.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만, 역사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는 걸, 세상을 변화시켜 온 건 무수한 불복종행동이 이어진 덕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지. 불복종행동은 순종을 강요하는 법이나 제도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깨우치고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 법이거든.

불복종에 관한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의 불복종>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19세기말 멕시코 침략에 반대해 세금을 내기를 거부했어.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한 전쟁을 위해 사용된다면 나도 그에 일조하는 셈이 되니까.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그 후로도 소로우는 미국의 노예제 유지를 비판하며 불복종행동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해. 1996년 1월 29일 새벽 3시, 세 명의 영국 여성은 인도네시아에 수출될 예정이었던 전투기 안으로 몰래 들어가 가정용 망치로 기관총, 레이저 등 무기를 부셨어. 그러고는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동티모르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사진을 붙이고 동티모르의 정의와 평화를 요구했어. 그 바람에 이들 세 여성은 구속되었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지. 이들이 파괴한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무기였거든. 이 일로 영국사회는 먼 나라 동티모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점령국인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영국정부의 잘못에 대해 알게 됐어.

이처럼 불복종행동에는 위험과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정의롭지 못한 제도나 행동의 핵심을 찌르는 불복종일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이곤 하지.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불복종을 선택하는 걸까? 1950년대 가혹한 흑백차별에 반대하며 미 몽고메리주에서부터 시작된 버스 타기 거부운동에 참여했던 72살 흑인 할머니는 그 이유를 잘 말해준 바 있어. "내 두 다리는 지쳤지만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

이런 행동은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965년 미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메리 베스 텅커와 다른 학생들은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항의 표시로 검은색 완장을 차고 등교했어. 징계를 받을 거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다음날에도 텅커와 친구들은 완장을 차고 등교했지. 학교는 이들에게 결국 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학교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텅커의 편을 들어줬어. 텅커는 이 사건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 위대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한테 뭉쳤을 때 어린 학생이지만 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어린 사람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가 할 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들어야 한다고. 프랑스에서도 교육정책이 잘못 나왔을 때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다르지 않아. 불안 핵폐기장 건설, 대운하 건설과 같은 환경재앙을 초래할 국가 정책이나 이라크의 평화를

과괴할 파병 결정 등에 대한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자기 역할을 찾아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어젖힌 첫 주역도 바로 청소년이었고, 학생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몰아넣는 일제고사 실시에 반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시험거부나 등교거부에 나서고 있기도 해.

물론 불복종은 정부 정책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아. 압제는 정부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학교, 거리, 아르바이트 가게,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압제는 존재하는 법이잖아. 2004년 종교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 강요에 반대하여 1인시위와 단식에 나섰던 강의석 학생, 2007년 교사가 휘두르는 몽둥이를 붙잡아 중단시킨 한 이름없는 학생, 2008년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며 학교 옥상에 올라 종이비행기 시위를 벌였던 광명 진성고 학생들, 그리고 선도부 선배에게 맞아 목숨을 잃은 친구의 영정을 들고 거리로 나서 학교의 변화를 촉구했던 강릉 K고 학생들, 모두가 이런 진실을 깨우쳐 준 사람들이지. 이런 행동들이 모여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거름이 되고 있어.

청소년이 불복종행동에 나설 때는 성인보다 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는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외출금지를 명하거나 용돈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보며 왠지 불안해지기도 할 거고. 불복종의 이유를 아무리 조곤조곤 잘 설명해도 잘난 척 한다, 어린 게 까분다, 싸가지 없다, 괜히 분란만 만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결정한 일인데 ‘배후가 누구냐?’는 난데없는 공격을 받기도 해. 청소년들도 생각이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도무지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 소신있게 행동에 나서기란 정말 쉽지 않아. 그래서 ‘오늘만, 내일만, 올해만, 내년만, 스무 살 될 때까지만 참자.’는 유혹의 목소리가 자주 올라오곤 하지.

하지만 우리는 알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내일이 되면 좋아질 거란 생각으로 ‘지금’을 포기하는 한 우리가 원하는 변화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걸. 존엄을 포기하고 무릎 꿇는 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유행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걸. 공포가 양심을 짓누르는 사회에선 영혼이 숨 쉴 수 없다는 걸.

지금 네 영혼은 평안하니? 넌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서 있니? 아니라고? 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가 보이니? 그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야.

* 출처: 김진아 외, <열정세대>, 양철북, 2009.

=====

인권을 되찾는 불꽃의 순간을 만들자

[빨딜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3)] 권리를 지킬 권리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체벌 교사의 매를 잡았다. 한국사회는 이 문제를 ‘하극상’의 문제로 생각한다. ‘학생이 감히 선생님에게 어떻게 예의 없이 그 따위 짓을 할 수 있나, 그런 학생은 두고 볼 수 없다!’가 일반적인 반응일 것이다. 똑같은 장면을 인권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달라질까? 부당한 폭력의 힘을 저지하기 위한 용기있는 불복종, 동료 학생의 인권 침해에 맞선 연대,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가 행사된 장면이 된다. 학생인권 마술피리가 부를 마지막 소절은 바로 ‘권리를 지킬 권리’이다.

괘씸죄 처벌에 도덕적 비난까지

위 사건은 실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던 사건이었다. 이 학생은 교사의 체벌을 제지하기 위해 매를 붙잡은 뒤 교무실에 끌려가 해당 교사에게 사과를 해야 했고 교장실에까지 불려갔다고 한다. 그 후 그 학생은 학생부장의 표적단속에 걸려 담배 소지가 적발되었고 결국 퇴학까지 당했다. 이른바 과심죄에 걸려든 것이다. 지난해에도 서울 K상고 학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비판하는 교사의 의견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린 채 몽둥이 체벌과 폭언 세례를 받아야 했다.



[사진 설명] 서울 K상고 교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 출처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그러나 주로 사람들이 끌끌 혀를 차는 대상은 교사의 보복이나 함정을 파놓고 걸려든 학생을 징계하는 학교의 파렴치가 아니다. 교사에게 말대꾸하고 교권이나 학교의 명예를 모욕한 학생의 '싸가지 없음'이다. 조용한 학교에 공연히 별집을 쭈셔 놓았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한다. 학생들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용기있게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은 탓인지 '배후가 누구냐?'는 난데없는 공격을 받기도 일쑤다. 학교에 의한 유무형의 압박에 넘어간 부모로부터 용돈을 끊겠다, 전학을 보내겠다는 협박과 만류에 어쩔 수 없이 이의 제기를 포기해야 하는 일도 흔하다. 그러다 보니 인권침해에 항의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단 인권이고 뭐고 죽은 듯이 살다 무사히 졸업이나 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선 널리 퍼지게 된다.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자, 벌 받을지니!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바깥에 알림으로써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고자 하는 시도 역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된다. 2006년 수원 청명고 학생들은 두발규정 강화에 맞서 학내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학교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휴대전화 압수와 탐문조사를 통해 언론에 제보한 학생들을 잡아내는 일이었다.



[사진 설명] 2006년 청명고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에 항거하여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청 민원 절차나 경찰 신고 절차도 학생에게 불리한 건 마찬가지이다. 2002년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은 친구로부터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청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퇴학을 당했다. 2005년 도교육청 민원게시판에 급식 질이 형편없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던 김제서고 학생도 담임교사의 지시에 의해 글을 삭제할 것을 강요당한 데 이어 퇴학 처분을 당해야 했다. 교육청이 학생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조사와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 것도 한몫했다. 교사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이 외려 제보 학생의 신원을 학교에 넘기고 학생을 나무라고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권리회복절차가 이런 식으로 운용되다 보니 학생들은 교육청이나 경찰에 알려봤자 더 큰 불이익만 자초할 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억압구조에 균열을 내는 불꽃의 순간

권리를 지킬 권리,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권리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인권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권리구제절차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그 절차의 존재와 활용 방안이 적극 알려져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권리를 지킬 권리의 다른 이름은 저항권, 곧 인간됨을 선언할 권리이다. 차별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생을 침묵과 체념 속에 가두는 일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인권침해이다. 권리 침해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행동은 인권침해를 되풀이하는 억압구조에 균열을 내는 불꽃의 순간을 만들어낸다. 그 불꽃을 목격할 때 다른 학생들도 두려움의 장막을 거둬내고 또 다른 불꽃의 순간을 만들 수 있다.



[사진 설명] 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맞서 우리가 직접 바꾸겠다는 청소년들의 선언이 돋보인다. 출처: 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 No!(www.notest.kr)

일제고사와 관련해 당국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무려 열한 명의 교사가 보복 징계를 당한 지금, 과연 학생의 저항권이 보장되는 때가 올 수나 있나 하는 회의가 자꾸만 고개를 쳐든다. 그러나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마술피리의 힘은 마법의 힘을 빌지 않는다. 권리를 보장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장 그 권리를 행사하는 용기있는 학생들의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뽀릴리 뽀릴리~ 더 힘차게 마술피리를 불어제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학생인권 마술피리 마지막 소절 : 권리를 지킬 권리

- 모든 사람은 부당한 법률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양심과 인권의 보편적 요청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 학생은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힘의 행사나 명령에 대해 즉각 또는 사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의견은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 자체가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학생은 학교 안팎에 마련된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그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이용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 학생은 양심의 요청에 따라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 회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제보나 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 출처 : <인권오름> 2009년 03월 04일

=====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류은숙

시민불복종은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법성보다는 정의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노암 촘스키의 글이다.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불복종 운동에 대하여 1967년 당시 뉴욕타임스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십여 명이 넘는 학자와 저술가들에게 ‘무엇이 불복종을 정당화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글은 그중 노암 촘스키의 답변이다. 본문에서 베트남전에 대해 말한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했다. 베트남전을 오늘의 우리 상황으로 바꿔놓고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5, 6월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불복종의 잔치에 시민불복종의 원조들을 초대해보려 한다.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연행하겠다는 경찰 앞에서 “그래 날 잡아가라”고 전경버스에 오른 사람들에게, **시민불복종에 헌신하는 사람은 기쁘게 투옥을 감내해야 한다**는 간디가 박수를 보낸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등장하여 자유발언을 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박수)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십시오.” (함성)

“오늘날 이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요? 나는 대답합니다. 수치감 없이는 이 정부와 관계를 가질 수 없노라고 말입니다. 나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적 조직을 나의 정부로 단 한순간이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을 때는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권리 말입니다.” (울소)(울소)

“당신의 운동으로 투표하십시오. 단지 한조각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십시오.” (환호)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출판 이레’의 『시민의 불복종』 참조)

다음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길거리 토론에 나선다. (대답 내용은 비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킹 목사가 구속됐을 때, 감옥에서 데모를 비방한 동료 목사들의 성명서를 접하고 이를 반박해 쓴 ‘버밍햄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 발췌해 구성했다.)

* 왜 다른 의사 표현 방법도 많은데 꼭 데모를 해야 하는 거지요?

“왜 직접행동이냐고요? 왜 연좌데모를 하는 거냐고요? 협상이 더 나은 방도가 아니냐고요? 이러한 그대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며 협상이야말로 우리의 행동이 원하는 궁극 목표입니다. 비폭력 직접행동은 위기와 긴장감을 조성시켜, 협상을 거부하는 사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즉 사회의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더 이상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직접행동의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오. …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해 건설적이고 비폭력적인 긴장은 필요한 것입니다. … 우리의 직접행동의 목표는 위기의식을 조성시켜 협상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협상을 주장하는 그대들의 의견과 나의 생각은 조금도 다를 바 없소.”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 이제 막 시작한 정부 아닙니까? 좀 기다리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권의 그 어느 한 부분도 압력을 가하지 않고서는 쟁취할 수 없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특권층이 그들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일은 역사적으로 한번도 없었소. … 우리는 피나는 경험을 통해 자유라는 것은 압박자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가 강력히 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 그런데 수 년 동안 ‘기다리라!’는 말만 들어왔소. 이 ‘기다리라’는 말은 항상 ‘결코 안된다!’라는 뜻으로 쓰여왔습니다. ‘지나치게 오래토록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라는 어느 저명한 법관의 말이 생각합니다.”

* 불복종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대로 법을 골라가며 지키고 안 지키고 하면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법은 지키고 어떤 법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는 공정한 법과 불공정한 악법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질문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공정한 법을 지키는데 제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공정한 법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책임감뿐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에도 꼭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악법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책임감까지 있어야 합니다. … 양심의 명령에 따라 악법이므로 복종하지 않겠다는 사람, 그래서 악법이 조장하는 불법에 도전하여 사회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의 형벌조차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실제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 시위대의 행동이 폭력사태를 초래한 것 아닌가요? 경찰만 나무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비록 평화적이었다 할지라도 폭력 사태를 재촉시켰으므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사건이 났을 경우 돈을 지니고 다닌 것이 강도를 유발시킨 원인이 되므로 피해자를 비난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쟁취하려는 노력이 폭력사태를 초래할까봐 억누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는 마땅히 강도에게 벌을 주고 피해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 시위대 속에는 순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 극단론자가 배후조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극단론자나 아니나보다는 어떤 종류의 극단론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한 극단론자입니까? 증오를 위한 극단론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정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론자입니까? 정의의 연장을 위한 극단론자입니까? … 아마 전 세계는 창조적인 극단론자가 지독히 필요할 것입니다.”

*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지칠 때도 되지 않았나요? 곧 사그라들겠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일어나 흑백의 자리를 구분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다면서 ‘피로하지 않느냐’는 주위의 물음에 ‘나의 두 다리는 지쳤지만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고 말한 몽고메리에 사는 72살의 노파. 그 노파로 상징되는 늙고 핏박받고 찌든 흑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노암 촘스키, 1967 뉴욕타임스)

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그것은 도덕적 필수물이다- 의견불일치가 포기돼야 한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 아무리 “자국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센 국가가 엄청난 고통과 파괴를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시민불복종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악이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당국에 언제나 복종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어디엔가 선이 그어져야만 한다. 그 선 너머에 시민불복종이 있다. 시민불복종은 아주 수동적으로 정부가 주도한 폭력에 참여하는 걸 단지 거부하는 것일 수 있다. … 시민불복종은 전쟁을 만들어내는 기구에 상징적으로 맞서는 것일 수도 있다. 참여자들이 정부의 무력에 맞서 입장을 고수하고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때 그러한 상징적 대결은 시민불복종이 된다. 시민불복종은 상징적 행동을 넘어서서 전진하는 것일 수도 있다.

.....

시민불복종의 한도는 대결하고 있는 악의 정도와 전략적 유효성과 도덕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 원칙과 전략에 근거하여, 나는 시민불복종이 철저히 비폭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면상 이에 대한 근거와 결론에 대한 토론을 할 수는 없다.

제기된 마지막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다. 미국의 정책을 방어하는 자들은 막연하게 공산주의의 “공격”을 말한다. 정확하게 언제 그런 “공격”이 있었던가? … 모두가 아는 것을 기술하려 하지 않겠다. 미국이 행한 바를 말하려고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도덕적 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다, 시민불복종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을 끝내려는 노력 속에서 전적으로 정당화된다.

극단의 도덕적 스펙트럼에서 따온 두 개의 인용구(각각은 매우 진실이다)로 마치겠다.

(1) “자연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그 국가가 민주주의건, 파시스트 독재이건, 의회이건, 공산주의 독재이건 간에, 언제나 인민을 끌고 가는 것은 간단한 문제다. 목소리를 내건 침묵하건, 인민은 언제나 지도자들의 분부대로 하게끔 끌려갈 수 있다. 아주 간단하다. 인민들에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침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심이 부족하며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화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작동한다.”

(2) “정의롭지 못한 법률과 관행이 살아남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복종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그렇게 한다. 악이 지속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인용구는 헤르만 괴링(히틀러의 심복이었던 나치장교)의 것이다. 시민불복종을 권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똑같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은 에이 제이 무스페(평화운동가)가 간디에 부여한 것이다. 이들의 말이 오늘날만큼 더 적절한 적은 없었다.

덧붙임

류은숙님은 인권연구소 '창'(<http://khrrc.org>) 연구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108 호 [입력] 2008년 06월 17일